

공개된 정보

2018년 4월 17일 저녁 7시경, 내과 전문의 이찬호가 진 병원의 신관 1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찬호는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스타 의사로 떠오르던 중이었고 원장의 막내딸인 김가원과과의 정혼으로 차기 원장 내정 소문까지 있었다. 신관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건물이었고, 당일에는 개인 짐 정리와 병실 내부 및 기기 점검을 위해 병원 관계자 몇 명만 들어가 있었다. 이찬호가 숨진 장소는 신관 13층의 격리병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 입가에는 타액이 남아있고 옷매무새는 상당히 흐트러져 있었지만, 격투의 흔적은 없다. CCTV는 마침 6시부터 7시까지 점검을 위해 꺼져 있었기에 그사이에 누가 격리병실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장에 있던 인원 중 알리바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총 4명. 당신은 용의자 중 한 명이 되어 당신의 무죄를 밝히고 범인을 찾거나, 혹은 당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다른 이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야 한다.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6시	담당 구역 점검 시작. CCTV 꺼짐
	최혜민, 13층 간호사실 점검
	김가원, 14층 마취과 점검
	김득진, 14층 원장실 점검
오후 6시 30분	최혜민, 13층 휴게실 잠깐 들름
오후 6시 55분	최민성, 병원 도착
오후 7시	최혜민, 13층 격리병실에서 최초로 시체 발견
오후 7시 1분	최민성, 비명 소리 듣고 격리병실 도착
오후 7시 4분	김득진, 최혜민으로부터 전화 받고 격리병실 도착
오후 7시 6분	김가원, 응성거리는 소리 듣고 격리병실 도착



김가원(30)



김가원(30) 여

→ 당신은 범인이다.

* 승리조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본다.

* 완벽한 승리조건: 김득진을 범인으로 본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병원장 김득진의 딸이며 진 병원의 마취 전문의다. 죽은 이찬호와와는 약혼을 앞두고 있었다. 이찬호와 약혼한 것은 차기 원장 후보로 경합하기 좋은 인재였기 때문일 뿐이다. 이찬호는 의사로서의 실력은 좋았지만 시답잖은 남자였다. 일시적 인기와 작은 칭찬들에 취해있었고, 눈치도 없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이용하기 딱 좋은 상대였다. 아버지가 원장 자리를 사위에게 물려주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당신이 상속받게 된다.

진 병원은 거대 제약회사인 JD제약과 약품에 대한 독점 납품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JD제약은 고가의 가격으로 약품을 팔아 이득을 챙겼고 김득진 원장은 그 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로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사실 김득진 원장은 JD제약의 주식 5%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진 병원 재단과 친인척들, 진 병원의 임원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합치면 40%에 달한다. 김득진 원장은 진 병원과 JD제약의 카르텔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고, 당신이 상속받기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카르텔 자체의 주도권이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차기 원장이 이찬호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얼마 전에는 아버지 몫의 JD제약 주식도 양도받았다. 사건 당일, 당신은 격리병실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격리병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당신은 아버지 김득진과 약혼자 이찬호의 밀회를 목격했다. 이찬호는 김득진에게 JD제약을 버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있었다. 진 병원의 관계가 끊어지면 JD제약도 끝이다. 충격적인 것은 김득진의 대답이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투로 대답했을 뿐, 이찬호의 제안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당신은, 자신이 사실상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절망이 살의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악마는 찰나에 숨어들어왔다. 당신은 평소라면 생각도 하지 않았을 범한 무서운 계획을 꾸며냈다. 그것은 바로 이찬호를 죽이고, 아버지에게 그 혐의를 씌우는 것.

당신은 먼저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러 14층으로 갔다. 평소 가까이 거리는 계단을 이용하던 당신이기에 굳이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다. 마취과로 들어간 당신은 먼저 지문이 남지 않도록 라텍스 장갑을 낀 후 할로세인(마취제)을 챙겼다. 마취과를 나온 다음에는 원장실에 들어가, 테이블 위의 손수건을 집어 들었다. 원장이 애용하는 손수건. 손수건에는 '유성고등학교 동

문회'라는 글씨가 확실하게 박혀있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온 당신은, 원장실의 문을 닫다가 뒤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원장실에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들기만 곤란하다. 당신은 침착하게 문고리를 잡은 자세 그대로 문에 노크를 했다. 마치 지금 들어가 보려던 마냥.

“원장님, 안에 계세요?” 대답은 뒤에서 들려왔다. 등 뒤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원장에게 당신은 원장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에 들어가 보려 했다고 둘러댔다. 원장은 문을 열고 안쪽을 휘휘 둘러본 뒤, 별일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잠시 혼자 있고 싶다면서 당신을 물었다. 원장실에서 물러난 당신은 13층으로 내려가 격리병실에 들어갔다. 혼자 남아 전화 통화 중이던 이찬호는 당신을 돌아보고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눈짓을 보냈다. 이찬호의 바로 뒤, 등에 가슴이 닿을 정도로 다가가도 그는 별달리 경계하지 않았다. 곧 약혼할 사람이니까. 당신은 원장의 손수건에 할로세인을 적시며 그가 통화를 끊기를 기다렸다.

통화를 끊고 그가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으려는 순간, 당신은 짐짓 장난치는 듯 뒤에서 그의 눈을 왼손으로 가리고, 오른손에 든 손수건을 앞으로 가져가 그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이찬호가 바닥에 쓰러지자 당신은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손수건으로 그의 호흡기를 막은 채 두 팔에 몸무게를 실었다. 5분가량이 지난 후, 그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한 당신은 격리병실에서 나와 14층의 마취과로 돌아갔다. 7시경, 원장실에서 김득진이 뛰쳐나가는 소리를 들은 당신은 제 1 발견자가 나타났음을 눈치챘다. 당신은 원장이 사라진 원장실로 들어가 손수건을 원래 자리에 놓아두고, 계단을 통해 13층으로 내려갔다.

허둥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조용히 입을 닫았다. 김득진이 이찬호와 마지막으로 만난 사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밝혀질 일이다. 그의 손수건에는 그의 지문과 이찬호의 타액이 잔뜩 묻어 있다. 가만히 있으면, 뜻대로 일이 돌아갈 것이다. 아마도.

당신의 시간대별 실제 움직임

오후 6시 18분	마취과 퇴장
오후 6시 20분	격리병실 문 앞에 도착. 김득진과 이찬호의 밀회 목격
오후 6시 25분	14층으로 계단 통해 이동
오후 6시 27분	마취과에서 장갑, 할로세인 챙김
오후 6시 29분	원장실에서 손수건 챙김
오후 6시 30분	원장실 문 앞에서 김득진과 마주침
오후 6시 32분	13층 도착. 격리병실 입장
오후 6시 39분	이찬호 사망. 격리병실 퇴장
오후 6시 42분	마취과로 복귀
오후 7시 4분	원장실로 이동. 테이블에 손수건 올려둠
오후 7시 6분	계단을 통해 13층 도착